개띠 스타 강이슬 "새해 소원은 KEB하나 PO행"

WKBL 평균 16.9점…국내선수 1위
3점슛 개수·성공률 등 압도적 선두

2018년은 60년에 한번 있는 황금 개띠의 해다. 이런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개띠 선수가 있다. 바로 부천 KEB 하나은행의 강이슬이다.

강이슬은 프로 데뷔 후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년차 시즌에 최고의 3점 슈터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강이슬은 지난 시즌에 돌파까지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2점 슛까지 보완하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한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이번 시즌 강이슬의 기록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득점 부문에서는 평균 16.9점으로 국내 선수 1위 자리를 꾸준히 놓치지 않고 있으며, 3점슛 성공 개수와 성공률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강이슬의 성장에 팀도 웃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축 선수였던 김정은을 FA계약으로 내보내며 큰 우려를 샀지만, 강이슬이 김정은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며 확실한 대체자 아니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강이슬의 2018년 목표는 어떤 것일까. 강이슬은 "우선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몸이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답을 내놓았다.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과 농구월드컵이라는 굵직한 국가대표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국가대표 발탁이 유력한 강이슬에게는 또 하나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다. 강이슬은 "대표팀에 뽑혀서는 슛이라는 강점을 잘 살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대표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이렇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강이슬에게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수비적인 측면이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이슬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더 적극성을 갖고 수비에 임해야 될 것 같다"라며 수비에 대한 보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강이슬은 응원해주는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강이슬은 "팀 성적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서나 밖에서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며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를 남겼다.

어린 나이에 에이스란 중책을 맡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이번 시즌을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마무리하여 자신의 해로 만드는 황금 개띠 강이슬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정엽 대학생 명예기자 ranstar1997@naver.com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이슬. 사진제공 | WKBL

young

평창 빛낼 설상종목의 별은?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 윤성빈 '봅슬레이 듀오' 원윤종·서영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전에 출전한 동계 올림픽에서는 빙상 종목만이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설상종목 선수들도 월드컵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 올림픽인 만큼 각 종목별로 많은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설 전망이다.

●스켈레톤 윤성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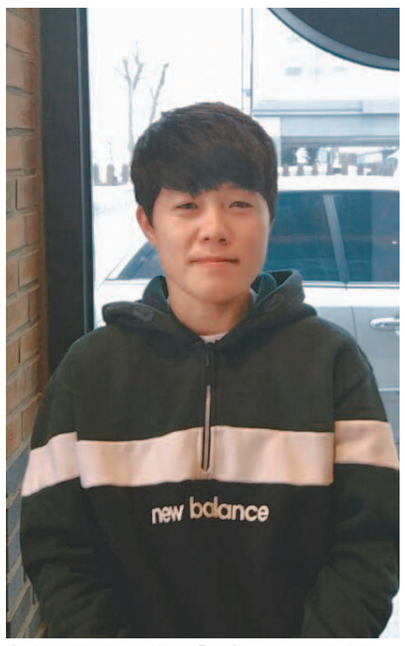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선수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강원도청·24)이다. 윤성빈은 국제무대 데뷔 4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올 시즌 5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 종목 최강자인 마르틴 두크루스(라트비아·33)와 맞대결에서도 3승 2패를 거두어 우위를 보였다.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윤성빈은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올림픽 출전 전까지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설날 아침부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할 것이다.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봅슬레이 2인승 국가대표 원윤종(강원도청·33)·서영우(경기연맹·27)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15/16시즌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썰매 종목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첫 '金' 기대감을 높였다. 원윤종·서영우 조는 이번 17/18시즌 체력과 컨디션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는 전략을 세웠다. 설상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썰매가 '홈 이점'이 가장 큰 종목이라는 점이다. 이번 시즌 동안 평창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낸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

안소윤 대학생 명예기자 95thdbs@naver.com

아듀 이장미 "어머니 덕분에 열 번의 수술 견뎌냈다"



은퇴 후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는 이장미. 사진제공 | 이장미

이천대교서 은퇴…지도자로 제2인생 꿈꿔

"그냥 선수 때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내요. 친구들도 만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근황을 묻는 질문에 환한 미소가 되돌아왔다. 이천대교 여자축구단의 미드필더 이장미는 2017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2004년 AFC U-19 여자 챔피언십 우승, 2009년 WK리그 원년 득점왕과 MVP 등 지소연보다 한 세대 앞서 한국 여자축구를 이끌었던 그에게 다소 걸맞지 않은 조용한 은퇴였다.

얼마 전 3급 지도자 강습회에 다녀온 이장미는 "결과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잘 못해서 자신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가 지도자의 꿈을 꾸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어린 선수들이 처음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강습회를 신청했다.

그는 스스로를 '부상으로 기량이 발전하지 못한 선수'라고 칭했다. 그의 커리어는 대학 시절부터 은퇴하는 순간까지 부상과 싸우며 흘린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다. 2010년 FFC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하며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을 때도 무릎 부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6개월 만에 돌아와야 했다.

무릎에 칼을 댄 것만 열 차례. 매 순간이 축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장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머니의 존재였다. 전도유망한 탁구선수였던 어머니는 가정형편 탓에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경기장이 아닌 병상에서 TV로 지켜봐야 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을 누비는 이장미를 볼 때면 어머니의 건강도 호전됐다. 이장미는 "어머니의 몫까지 뛴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상이 그에게 시련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저밖에 몰랐어요. 말수도 없고 성격도 독하니까 후배들이 무서워했죠." 다치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거듭한 지금에야 비로소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시야를 얻었다.

"후배들이 저보고 잘 다쳤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싫었는데 다치고 나서 사람 됐대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의 선수 인생은 마침내 종착역에 닿았다. 소회를 묻자 그는 여기까지 온 자신이 대견하다고 대답했다. "너무 많이 다쳐서 내 몸한테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 준 은사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고 김창기 감독님, 정상국 감독님, 백종철 감독님, 윤수진 감독님, 고 최추경 감독님, 안익수 감독님, 박남열 감독님, 김상태 감독님, 그리고 신상우 감독님.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지영 대학생 명예기자 kksoh17@naver.com